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25~2017.1.3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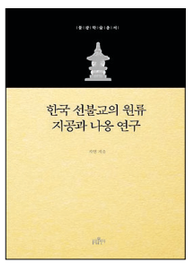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2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주)조계종출판사
3	붓다아비담마	멤틴몬/김종수	불광출판사
4	대방광불화엄경강설50(三十七.여래출현품)	여천무비	담앤북스
5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	요코야마코이츠/해암	민족사
6	모든순간껴안기	아남 틈텐/임희근	담앤북스
7	안되겠다내마음좀들여다봐야겠다	용수	나무를심는사람들
8	테라가타-장로게경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9	니까야로읽는금강경	이중표	민족사
10	혜민스님의따뜻한응원(365일마음달력)	혜민	수오서재



"지공·나옹… 고려말 재점화된 禪宗"

한국 선불교의 원류 지공과 나옹 연구

자현 스님 지음 | 불광 펴냄 | 2만 8천원



4개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계종 교육아사리 자현 스님이 여말선초 붓다의 후신(後身)으로 존숭받은 지공 선사와 나옹 화상에 대한 시리즈 논문 13편을 엮어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은 지공과 나옹에 대한 입체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 선불교의 원류를 재조명하며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목적을 갖는다.

지공·나옹 선사 연구는 필수

〈태종실록〉 권30에 의하면, 조선 태종 이방원은 불교를 배척했음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지공과 나옹 이후로, 내가 보고 아는 바로는 한 승려도 도에 정통한 이가 없다(我國自指空 懶翁之後 予所見知者 無一僧精於其道者)." 이는 당시 지공과 나옹의 위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것이다. 지공과 나옹은 현대의 불교의식에서도 빠지지 않고 증명삼화상(證明三和尙:지공·나옹·무학)으로 모셔진다. 지공과 나옹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불교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국 선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지공과 나옹에 대한 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 선불교에는 인도불교의 피가 흐른다. 인도의 왕자 출신으로 고려에 머문 지공 선사의 막대한 영향력 때문이다. 그리고 지공의 수제자 나옹은 임제종의 제 18대 법손 평산처림의 법맥도 계승한다. 즉 인도의 선과 중국선종을 모두 계승한 것이다. 또 나옹은 현 조계종의 법맥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법맥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계종의 시원은 보우가 아닌 나옹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공은 인도불교가 이슬람의 공격으로 사라진 후, 대승불교의 잔존문화 속에서 출가한 왕자 출신의 승려다. 지공은 1300년 중인도 마가다국의 국왕인 만(滿)과 남인도 향지국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는 그의 기록에 따르면 부계로는 붓다, 모계로는 달마 대사의 혈통이다. 8세에 인도불교의 3대 사찰 중 한 곳인 나란타사로 출가해, 10여 년간 반야학과 계율을 수학한다. 이후 스리랑카에서 선불교를 수행한 후 티베트를 거쳐서, 차마고도를 따라 운남을 경유해 원의 수도인 대도(현 북경)에 도착한다. 그리고 원나라 제 6대 황제인 진종의 어향사(御香使) 신분으로, 1326년 금강산의 법기보살에게 향공양을 올리기 위해 고려를 찾는다. 당시 고려불교는 원 간섭기에 따른 티베트불교의 영향으로 대처승이 절반이나 되는 등 극히 세속화돼 있었다. 지공은 1328년 9월까지의 총 2년 7개월을 머물면서, 하루는 선(禪)을 설하고 하루는 계(戒)를 설하며 고려의 풍속을 일신시키고 선불교의 기상을 중흥하게 된다. 지공은 대승불교의 계율관을 갖고 있던 선승이다. 지공은 대승의 무생계(無生戒)를 통해서 고려불교를 교화하는데, 이는 이후 고려불교의 계율관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공민왕에 의해서 원 간섭기가 끝나는 시기부터 고려불교는 신속하게 청정성을 회복하는 저력을 발휘한다. 즉 지공의 계율 강조가 고려불교의 청정성 회복에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지공이 원의 대도로 돌아간 이후에도, 고려에서 유학 가는 선승들의 다수는 지공을 참배하고 가르침을 받는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수제자였던 공민왕의 왕사 나옹과 〈직지〉로 유명한 백운경한,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왕사인 무학자초와 정지국사 축원지천이다. 지공과 이들 선승들의 노력에 의해서, 고려불교는 티베트불교의 그늘을 벗어나 신속하게 청정성을 회복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공이 고려불교에 남긴 유산은 실로 엄청나다고 하겠다.

한국 선불교의 완성자, 나옹선사

나옹은 20세에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문경 대승사 묘적암의 요연 선사의 문하로 출가한 후, 25세까지 각지를 두루 유력하며 수행하다가 양주 회암사에 이르러 4년간의 장좌불와를 통한 용맹정진 끝에 28세의 나이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나옹은 깨달음을 증득한 직후 원나라로 유학을 떠나, 대도의 법원사에서 지공을 참배하고 문하에서 수학한다. 이후 중국의 불교유적과 선승들을 참례하는 과정에서, 임제종의 18대가 되는 평산처림의 인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계속 성적순례를 하다가 수도로 되돌아와서 지공에게도 인가를 받는다. 고려로 돌아온 나옹은 공민왕 말기에 불교계의 중심인물로 대두된다. 공민왕의 불교개혁에 발맞춰 고려불교 최대의 초승과(超僧科)인 공부선(功夫選)을 주도하고, 왕사가 되어 고려불교의 발전과 변혁을 도모한다. 그러나 공민왕이 시해되고 우왕이 옹립되는 과정에서, 나옹 역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당시 나옹에 대한 탄압 명분은 나옹이 중창(修造)한 회암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즉 최고 권력자를 위협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던 것이 죄목이었던 셈이다. 결국 나옹은 여주 신륵사에서 돌연 열반하게 된다.

열반 이후 무수한 사리가 분신하여 증가하는 등 기이한 이적들이 속출하면서, 나옹에 대한 대대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로 인하여 나옹에 대한 추모열기가 전국을 휘몰아치게 되고, 마침내 조선 초에 이르러서는 붓다의 후신으로까지 평가되며 신성화되기에 이른다.

나옹은 또 한국불교의 승단 안에서도 증명삼화상이라는 신화구조를 통해 오늘날까지 모든 불교의식문(佛敎儀式文)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이 외에도 모든 사찰에서 새벽예불 때 올리는 행선축원 역시 나옹의 발원문을 사용한다.

조계종과 한국선의 원류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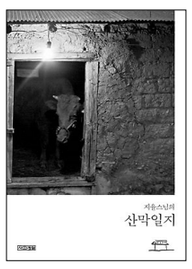
흔히 현대의 조계종을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확립된 구산선문(九山禪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종은 스승과 제자의 상전(相傳), 즉 법맥을 통해서 계승되는 불교다. 그러나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고려 선종의 전승, 즉 법등은 완전히 단절되고 만다. 이 단절된 법맥과 법등을 원나라의 임제종으로 유학해서 다시금 이어오는 인물이, 바로 나옹과 보우 같은 유학승들이었다. 즉 현대의 조계종은 이들에 의해서 고려 말에 새롭게 재점화된 선종인 셈이다.

김주일 기자

자연은 가장 오래된 經典

지율스님의 산막일지

지율 스님 지음 | 사계절출판사 펴냄
1만 5800원



지율 스님〈사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닉네임은 '천성산 지킴이'이다. 스님은 생명을 파괴하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오랜 단식을 끝내고, 걸음도 걷지 못하는 아픈 몸으로 경북 영덕 칠보산 기슭 마을에 들어왔다. 그곳 산막에서 지율 스님은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록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스님은 죽음의 문턱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서로 일손을 보태고 음식을 나누며, 오순도순 투덕투덕 정을 쌓아가는 마을 어르신들의 일상을 통해 자연스레 생명의 귀함과 인간사의 애틋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초봄 땅이 풀리자마자 시작돼 절기에 따라 진행되는 소농들의 농사 이야기를 통해 농촌의 한해살이를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책은 지율 스님의 농사일지이자, 열 가구가 모여 사는 오지 마을 어르신들이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이다.

자연의 순리가 곧 깨달음

천성산 살리기를 위해 5차에 걸쳐 단식한 지율 스님은 지난 2006년 단식을 중단했다. 그리고 칠보산 기슭에 정착한다. 처음 한동안은 기웃거리는 외부인에 불과한 스님은 문 앞에 슬그머니 음식을 놓고 가고, 멀쩡한 데가 없는 낡은 집을 손봐주고, 어설픈 텃밭 농사를 거들어주는 마을 어르신들의 다정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스님은 '마을 사람'이 되어간다.

닷새에 한 번 버스가 들어오는 깊은 산속 오지 마을서도 어르신들은 쉬지 않고 일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손발을 가만 두는 날이 없었다. 몸도 마음도 상할 대로 상해 삶의 끄트머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스님은 세상 끄트머리 같은 그곳에서 죽음이 아닌 삶 쪽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 '봄에 싹이 터서 그해 가을에 열매를 맺고 죽는 일'이라는 '한해살이'의 정의처럼, 심고 가꾸고 거두고 '죽음'과도 같은 겨울을 보내고 다시 또 씨를 뿌리는 농촌의 삶을 지켜보며 죽음의 터널서 빠져나와 다시 자기 삶을 심고 가꿀 수 있게 됐다.



자연의 신음 소리에 함께 아파하며 쓰러져 가던 지율 스님은 바람 소리, 빗소리, 할배의 장작 패는 소리, 댓잎이 사그락거리는 소리, 할매의 구성진 노랫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몸을 일으켰다. 긴 겨울 끝에 다시 봄이 오고, 또다시 낫과 호미를 드는 소농들의 삶. 돌고 도는 자연의 순리가 곧 깨달음이요, 경전이었다.

오지 마을 농촌서 한해살이

이 책에는 칠순, 팔순을 넘긴 어르신들이 자기가 태어난 혹은 시집 온 집에서 예전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으며, 한 해를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오랜 시간 변해가는 자연을 기록해온 지율 스님은 이 마을서도 관찰자이자 참여자로서 어르신들의 농사 일지를 대신 써내려간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온 마을이 모여 동제를 지내고, 길일을 택해 장을 담그고, 분뇨를 모아 거름을 만들고, 소를 몰아 밭을 가는 식의 전통적인 농경은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귀한 풍경이라 여기며 사소한 일화 하나까지 꼼꼼히 수집하듯 적어 넣었다.

도시 사람들에게 계절의 변화라고 하면 옷차림이 달라지는 정도겠지만, 농촌에서는 마을 전체가 앉는 자리가 달라지고 하는 일이 바뀐다. 한 장 한 장 달력을 넘기듯 지율 스님의 일지를 따라가다 보면, 철따라 달라지는 농촌의 풍경과 쉴 틈 없이 움직이는 농부의 손과 발이 눈앞에 그려진다. 농촌에 고향을 둔 이들이라면 잠시 향수에 젖을 것이고, 마트 진열대서 계절 감각을 잃은 도시인들이라면 식탁 위에 놓인 곡식과 작물들이 어떤 노동을 거쳐 온 것인지 대략적으로나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기록한 적 없는 어르신들 작은 일대기

이 책에 등장하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분명한 '캐릭터'가 있다. 삼십오 년 동안 꼬박꼬박 마을 살림살이를 수첩에 적어온 이장님, 늘 막대사탕을 물고 다니며 사탕이 입안서 녹는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나무 할배, 이십여 년 전 당뇨로 시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나무를 하고 밭일을 하는 자야 아재, 이야기 중에 늘 '대한민국'을 끼워 넣는 옥이 할아버지, 구성진 노랫가락에 시름을 잊는 옥이 할매와 진국 할매, 도시에 나갔다가 팔 하나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와 술에 절어 사는 총각 호영이 등 지율스님은 누구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짧은 글 안에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드러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심성의껏 묘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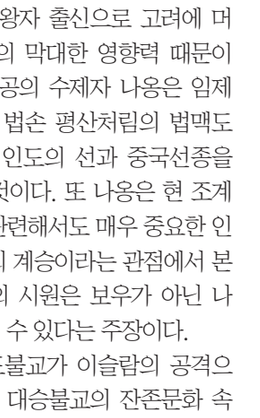
구십이 넘은 눈먼 할매, 팔순이 넘은 나무꾼 할아버지와 할매, 소를 모는 아재, 호미질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매들, 도시에서 싸움질하다 크게 외상을 입고 고향에 들어와 술에 쪄들어 사는 청년, 도시로 나갔다가 고향이 그리워 가족을 두고 혼자 돌아온 초로의 아재, 귀 어둡고 눈먼 가난한 사람들… 등등.

저자는 "그분들의 거친, 그러나 착한 마음들을 깊이 들여다본다. 사람이 풍경을 좌우한다는 말을 이곳에 살면서 알게 되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을 때는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한 장의 사진도 찍히지 않는다"고 밝힌다.

풀 한 포기, 나무 열매 하나, 도롱뇽 한 마리가 귀하듯 지율 스님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 소중했다. 땅에 엎드려 평생을 심고 가꾸고, 낳고 기르고, 거두고 나누어왔지만 삶의 끝자락에 온 지금까지 누구 하나 그들의 삶에 주목하지 않았다. 지율 스님은 자신의 삶에 생기와 온기를 불어넣어준 마을에 은혜라도 갚듯이 할배의 발, 할매의 한숨, 아재의 손, 젊은이의 상처에 두루 눈길을 주고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완성한 이 책은 곧 마을 어르신들의 작은 일대기이자, 처음으로 기록된 그 마을의 역사이기도 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최상승 방편의 비밀신주!
원하는 바를 즉각 얻을 수 있게 하는 진언, 진언 중의 근본진언!



수구즉득대다라니
隨求卽得大陀羅尼

"나(부처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을 널리 설하여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 이 진언이 가장 최상이며 제일이니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본문에서)

우리말 번역과 함께, 가피의 효험, 사서 방법, 기도법 등을 덧붙여 누구라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공금강 한역漢譯/석법성 역주/국판/160쪽/ 9,000원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일깨우는 맑은 소리!

개에게 우유를 먹이는 방법

17년 동안 쌓인 지하철 〈풍경소리〉의 에센스!

고요한 산사의 풍경소리처럼, 삶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맑은 여운을 남기는 100편의 이야기!

고암 정병례 선생의 전각그림과 박준수 화가의 동양화가 어우러져 깊이를 더해준다.

글 풍경소리/전각 정고암/그림 박준수/국판/216쪽/13,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